

뉴질랜드 수문학회(New Zealand Hydrological Society)와의 교류협정 체결



이 주 현 |

중부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부교수
leejh@joongbu.ac.kr



정 상 만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smjeong@kongju.ac.kr

1. 서론

올해로 한국수자원학회가 40회의 생일을 맞게 된다. 학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학회가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하여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2년간 국제학회 교류분과 위원회의 전체 위원과 함께 일본 수문·수자원학회 및 중국수리학회와의 정기적인 학술교류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 학회 영문분과로서 제작, 삼협댐 시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국제협력의 확대라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개국간의 학술교류와 함께 뉴질랜드 수문학회(Hydrological Society of New Zealand)와의 학술교류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한국수자원학회의 회장단이 2007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뉴질랜드 수문학회를 방문하

여 양 학회의 학술 교류방안 및 미래 지향적인 국제 협력방안을 토의한 후,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싸인 하였다.

2. 양해각서 체결 조인식

뉴질랜드 수문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 간의 양해각서 체결은 뉴질랜드의 행정수도인 웰링턴에 위치한 Portland Hotel of Thorndon에서 2007년 2월 13일 오전에 있었다.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한 조인식에 참석한 명단은 한국수자원학회에서는 송재우 회장, 류승하 부회장, 정상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및 본인 등 4명이 참석하였으며 뉴질랜드 수문학회 측에서는 현 학회장인 Tim Davie, 전임학회장인 Paul White, 뉴질랜드 수문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장인 Richard Hawke 및 본 협력사업의 실무를 맡은 Timothy Hong 등 4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본 조인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이준규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본 조인식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왕립학회(Royal Society of NZ)의 CEO인 Steve Thompson 및 실무자가 참석하였고, 뉴질랜드 과학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의 Anne French, 뉴질랜드 과학기술부(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의 Amanda Tomlinson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인식에 함께 하였으며 조인식과 함께 2시간여에 걸친 심도 있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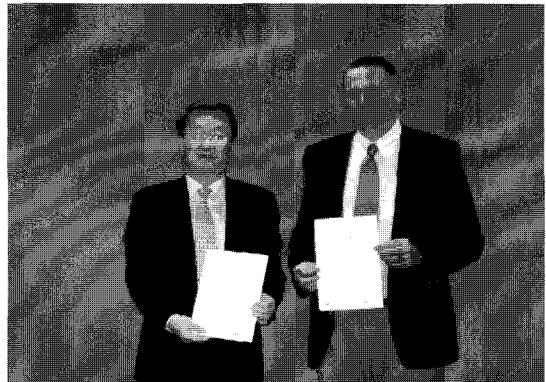


사진 1. 양 학회 회장단의 MOU signing

조인식 후에는 국립기상 및 해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ic Research, NIWA)와 Geology & Nuclear Science(GNS)를 차례로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홍수예경보 시스템, 유역 관리 체계 및 Ground Water Dating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저녁에는 뉴질랜드 수문학회에서 주관한 저녁만찬에 참석하였다.

한편 2월 14일 오전에는 GNS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지표수 연계운영 모형 개발이라는 연구프로젝트의 대상 유역을 방문하기 위하여 Taupo라는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이곳에 있는 GNS branch를 방문하여 관련연구에 대한 presentation을 청취한 후, 국제협력 세부방안에 대한 회의시간을 가졌다.



사진 2. 뉴질랜드 국립 지질-원자력 연구소(GNS) 방문

3. 협정 내용

두 학회간의 교류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다음 페이지에 언급된 기본적인 협정내용과 함께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 14일 오후에는 양 학회의 회장단과 실무진이 함께한 세부협정에 대한 실무자 토의가 있었다. 실무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협력 세부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Journal of Hydrology NZ의 New Zealand-Korea Special Edition 출간(2008년 예정)
(대한민국 5편, 뉴질랜드 5편 정도)
- ② 매년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에 상대국 회원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2007년부터 시작)
(3명 내외의 참가단을 구성하며 참석자에 대한 체제비 지원)
- ③ 양 학회 홈페이지에 상대학회의 홈페이지를 링크(2007년부터 시작)
- ④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⑤ 상대학회에 해외회원(overseas member) 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

이상과 같은 세부 협의 내용을 상호 채택하였으며 향후 교류를 진행하면서 양 학회의 관계를 더욱 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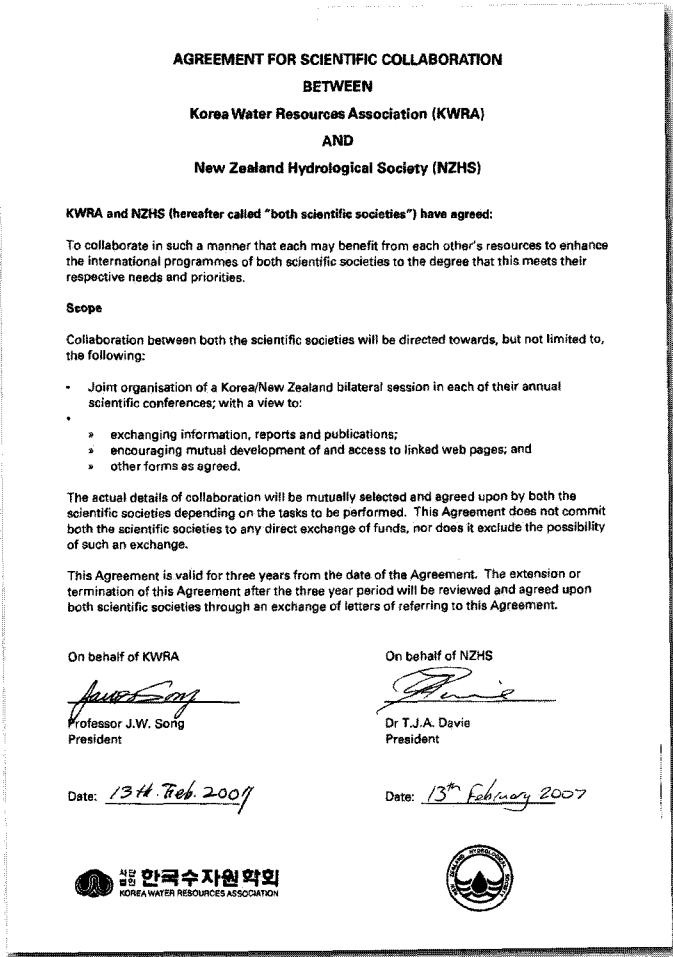


사진 3. 양 학회간의 학술교류 협정서

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4. 맺음말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비행일정과 뉴질랜드에서의 빠듯한 일정으로 4박 5일의 출장 일정이 매우 짧게만 느껴졌다. 특히 우리들을 위해서 매우 여러 가지의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 하고 4일간 내내 우리와 함께했던 뉴질랜드 수문학회의 전임회장과 현회장인 Paul

White와 Tim Davie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본 협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부터 지금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뉴질랜드 GNS에 근무하는 홍윤석 박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바쁘고 힘든 여행일정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본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송재우 회장님과 류승하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학회의 회원이 매년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수자원과 관련된 학술교류와 함께 천혜의 자연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